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이 용 재(Yong-Jae Lee)**
이 수 상(Soo-Sang Lee)***
조 용 완(Yong-Wan Cho)****
장 임 숙(Im-Sook Jang)*****

< 목 차 >

I. 서론	3.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설문지 구성
1. 연구의 목적	IV. 연구의 결과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의 특성
II. 이론적 배경	2.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
1.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	3.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별 실태
III. 연구의 설계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수준의 비교분석
1. 기존 정보리터러시 기준 및 지침 분석	V.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2.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소 추가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보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활용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다문화사회, 이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정보활용능력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ways to improve their information literacy. In conducting this study, a survey was given to 415 migrant workers and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rea. The survey shows that the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is on basic level and the fields of information use, information production,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on relatively low level. To reinforce the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some effective ways need to be developed i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nd Korean language programs.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Immigrants, Migrant Worker, Female Marriage Immigrant, Information Literacy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10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yj5384@pusan.ac.kr)(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slee@pusan.ac.kr)(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joyproject@empal.com)(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mukk73@naver.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등 정보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의 집합”인 정보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들, 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정보리터러시를 배양하기 위해 정보리터러시의 핵심적 요소들을 요약, 정리한 정보리터러시 기준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¹⁾

한편, 우리 사회는 최근 우리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5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추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들은 기존의 국내 거주민과 달리 완전히 언어와 풍습, 문화, 제도가 다른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일상생활을 비롯해 취업, 자녀교육, 주택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들도 고도화된 정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리터러시의 배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더디고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 출신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정보리터러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모형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등 학습활동 관련 과제수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주민의 삶의 양태와 잘 조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부 이주민이나 유학생의 정보 관련 연구라 하더라도 주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 이주민이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들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 이주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559,965명, 법무부, 2009년 6월 30일 현재)와 결혼이주여성(126,155명, 법무부, 2009년 6월 30일 현재)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생소한 이국땅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중심의 정보리터러시 지침이나 기준들을 수정, 보완해서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배양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모형들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와 이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와 도서관 및 정보

1) <Big6>와 같이 비교적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리터러시 모형이라 하더라도 주 고려대상은 자국 내의 학생과 대학생, 일반 성인들이다.

서비스 관련 연구를 분석, 정리하여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한 다음,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로 하고,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 및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표집방법은 모집단의 국적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에 기초하였으나, 조사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의할당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채택하였다.²⁾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주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과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하여 총 41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윈도우용 SPSS 14.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 이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어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여부, 정보리터러시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교차분석, 집단간 차이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표 1〉 결혼이민자의 주요 국적별 현황

(2009. 5. 31. 단위 : 명)

국적	총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원	126,290	35,304	33,643	29,171	6,199
국적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타이	기타
인원	4,997	2,790	2,316	2,091	9,779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5)

〈표 2〉 이주노동자의 주요 국적별 현황

(2009. 5. 31. 단위 : 명)

국적	총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인원	565,028	319,067	21,215	49,123
국적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원	30,340	26,442	24,560	13,952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5)

2) 모집단의 국적별 인구비례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으로 한정하고, 이주노동자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으로 조사대상 국적을 한정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표본수가 적은 출신국가는 제외). 그런데 조사대상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주민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의 프로그램수강자 및 상담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를 이용하지 않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표본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중국인과 통합하여 표본수를 조정하였다. 조사의 기본데이터는 2009년 5월말 현재 기준의 법무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

본 연구과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는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들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라는 주제 속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LISTA 등의 검색에서도 히트되는 검색결과가 거의 없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로는 한국염 등이 수행한 연구³⁾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비록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교육에 국한되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인 정보리터러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연구들은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에 초점을 둔 연구라기보다는 도서관의 이주민 대상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들이거나 이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이었다.

가.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관련 연구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문화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국내 도서관들이 벌이고 있는 다문화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국내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의 실태를 점검한 조용완의 연구,⁴⁾ 전남 지역 공공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김갑현의 연구,⁵⁾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경란, 한복희의 연구⁶⁾와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의 연구⁷⁾ 등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다문화자료의 입수 방안을 제시한 조용완의 연구,⁸⁾ 다문화도서관의 다문화자료의 목록구축 사례를 제시한 노지현의 연구,⁹⁾ 도서관 특색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

3) 한국염 등,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pp.1-321.

4) 조용완,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245-269.

5) 김갑현,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pp.1-83.

6) 이경란, 한복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권, 2호(2009. 4), pp.47-74.

7)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3), pp.135-160.

8) 조용완,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429-456.

램과 관련 서비스의 개발원리와 방향을 제시한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의 연구,¹⁰⁾ 도서관과 대사관, 문화원 등 다문화관련 단체들의 온라인 정보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혜영, 곽승진의 연구¹¹⁾ 등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외국의 경우,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자료서비스, 상담지도, 각종 훈련과 세미나, 출판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온 덴마크 국제협력협회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한 Bruun의 연구,¹²⁾ 도서관 홍보, 다국어 지원, 관련단체와의 협력, 다중언어 장서,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중점 사업, 새로운 정보기술의 소개 등의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시한 Someville의 연구,¹³⁾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를 뛰어넘어 능력개발, 취업과 언어능력 향상 등 효과적인 사회통합과 정착지원을 제공하는 hybrid library의 개념을 제시한 Thorhauge의 연구,¹⁴⁾ 미국 테네시주 한 도서관이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이동도서관을 개발한 사례를 소개한 Virgilio의 연구,¹⁵⁾ 캐나다 토론토시의 Toronto Public Library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는 Oder의 연구,¹⁶⁾ 미국 인디애나주 공공도서관의 라틴 출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는 Naylor와 Frey의 연구,¹⁷⁾ 호주 City of Greater Dandenong 도서관이 이주민 대상 다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다국어를 지원하는 'My Language Portal'를 개발한 사례를 연구한 Bogdanovic와 Johanson의 연구¹⁸⁾ 등이 있다.

나. 이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관련 연구

이러한 연구 중에서는 일본 관서지역과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정

-
- 9) 노지현,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8. 12), pp.397-420.
 - 10)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6), pp.91-122.
 - 11) 이혜영, 곽승진, "다문화정보서비스의 협력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6), pp.147-169.
 - 12) Inger Bruu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n immigrants and refugees," *Journal of Multicultural Librarianship*, Vol.4, No.2(1989), pp.83-85.
 - 13) Mary R. Someville, "Global Is Local," *Library Journal*, Vol.120, Issue.3(1995), pp.131-133.
 - 14) Jens Thorhauge, "Danish Strategies in Public Library Services to Ethnic Minorities," *IFLA Journal*, Vol.29, No.4(2003), pp.308-312.
 - 15) Damone Virgilio,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okmobiles & Outreach Services*, Vol.6, No.2(2003), pp.7-15.
 - 16) Norman Oder, "Growing into a Changing City," *Library Journal*, Vol.128, Issue.10(2003), pp.40-42.
 - 17) Shelly Naylor and Susan M. Frey, "Where Cultural and Information Literacy Meet : Serving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in Indiana," *Indiana Libraries*, Vol.25, No.4(2006), pp.2-7.
 - 18) Marijana Bogdanovic & Graeme Johanson, "Improving access to online multilingual resources by adopting the My Language Portal in the City of Greater Dandenong Libraries,"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56, Issue 2(2007), pp.135-151.

보요구, 이용하는 정보원, 정보입수 과정에서의 장애 등을 조사한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의 연구¹⁹⁾와 이제환의 연구²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산, 경남 거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적용한 이용재, 배화숙의 연구²¹⁾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실태과 그 구조를 SNA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이수상, 장임숙의 연구²²⁾가 수행되었다. 외국의 관련 연구로는 영국 내 소말리아 난민들이 언어문제와 고유의 구두(口頭) 문화 전통으로 정보입수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혀낸 Olden의 연구²³⁾와 오랫동안 구두문화에서 살고 전쟁 등으로 문자해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몽족 난민의 보건관련 정보입수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특성에 기반한 보건정보 제공 서비스를 펼칠 것을 주장한 Allen, Matthew & Boland의 연구²⁴⁾ 등이 있다.

다. 도서관의 유학생 대상 서비스

국내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의 증가추세와 달리, 국내의 유학생 관련 정보리터러시 연구는 아직 초창기 상태이다. 소수의 연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국내 한 대학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포털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이수상, 위성광의 연구²⁵⁾와 국내 한 대학도서관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이현실과 황동렬의 연구²⁶⁾ 국내 여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학부 및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이 제공하는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이수상의 연구²⁷⁾ 등이 있다.

외국의 관련 주요 연구로는 문화적 적응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한 Baron과 Strout-Dapaz의 연구²⁸⁾ 경영학 전공의 유학생과 영국 학생간의 정보리터러

-
- 19)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在日韓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221-248.
- 20) 이제환,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91-116.
- 21) 이용재, 배화숙,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8. 12), pp.479-504.
- 22) 이수상, 장임숙,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243-268.
- 23) Anthony Olden, “Somali refugees in London : Oral culture in a western information environment,” *Libri*, Vol.49(1999), pp.212-224.
- 24) Margaret Allen, Suzanne Matthew & Mary Jo Boland, “Working with Immigrant and Refugee Populations : Issues and Hmong Case Study,” *Library Trends*, Vol.53, No.2(2004), pp.301-326.
- 25) 이수상, 위성광, “중국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07. 12), pp.113-134.
- 26) 이현실, 황동렬,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p.145-165.
- 27) 이수상,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제14권, 3호(2009. 10), pp.191-217.

시를 비교, 측정한 Tunde Varga-Atkins와 Linda Ashcroft의 연구,²⁹⁾ 최근 유학생들의 도서관 경험과 컴퓨터 능력이 향상되었기에 비판적 사고와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Jackson의 연구,³⁰⁾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로 언어와 소통의 문제, 교육 및 도서관 체제의 적응 문제,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권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례를 소개한 Hurley 등의 연구³¹⁾ 등이 있다.

이상에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에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개괄한 결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이주가 보편화되고 이주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고도의 정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놓는 연구들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정책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

1. 기존 정보리터러시 기준 및 지침 분석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적합한 정보리터러시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구성요소 도출과정은 다시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모형들을 검토하여 이주민에게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정보리터러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여러 정보리터러시 기준들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CRL의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³²⁾ ANZIIL의 <Australia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³³⁾ SCONUL의 <The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28) Sara Baron & Alexia Strout-Dapaz, "Communicating with and empowering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library skills set," *Reference Services Review*, Vol.29, No.4(2001), pp.314-326.

29) Tunde Varga-Atkins & Linda Ashcroft, "Information Skills of Undergraduate Business Student - A Comparison of UK and International Students," *Library Management*, Vol.25, No.1/2(2004), pp.39-55.

30) Pamela A. Jackson,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Library : A Survey," *Reference Services Review*, Vol.33, No.2(2005), pp.197-209.

31) Tina Hurley & et al, "Crossing a bridge : The challenges of developing and delivering a pilot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w Library World*, Vol.107(2006), pp.302-320.

32) ACRL,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2000, Available at,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s/standards.pdf>> [cited 2009. 10. 11].

Literacy model)³⁴⁾을 중심으로 정보리터러시 기준들의 주요 요소들을 통합, 정리하여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일반적인 정보리터러시의 핵심요소는 정보요구 인식, 정보원 인식, 정보접근/정보검색, 정보이용/분석/관리, 정보생산/공유, 정보윤리/정보문화 등이다.

<표 3> 주요 정보 리터러시 기준 내용 비교

ACRL 기준	SCONUL 기준	ANZIIL 기준	비고
1.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능력	1. 정보요구의 인식 능력 2. 정보결손의 확인 능력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결정 능력	정보요구 정보원 인식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3. 검색전략의 구축 능력 4. 소개파악 및 검색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정보접근/정보검색
3. 정보의 비판적 평가와 선택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로의 결합 능력	5. 비교평가 능력	3.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정보이용/분석/관리
4.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능력	6. 정보의 조직, 적용, 전달 능력 7. 기존 정보의 종합 및 새로운 지식의 창조능력	4. 추적, 수집, 생산된 정보의 관리 능력 5.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적용 능력	정보생산/소통/공유
5. 정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6.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정보윤리/정보문화

2.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소 추가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기준이나 모형들이 대부분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수행을 주로 하는 대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초점에 맞춘 것들이어서 세부 내용을 이주민의 입장에 맞추어보면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에 관련된 모형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주민과 유학생 대상 도서관/정보 서비스와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주민과 관련해 두드러지는 것은 언어 소통 부분과 도서관 이용 문화, 문화적 차이, 교육시스템의 차이, 정보통신기술 발전 수준 차이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현지 언어 부분과 정보통신기술 부분은 일반적 정보리터러시 구성요소와 함께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구성요소로 추가하였고,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 정보리터러시 구성요소로 녹여 내었고, 문화적 차이와 교육시스템 차이 부분은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요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제외하였다.

33) ANZIIL,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2004, Available at,

www.anziil.org/resources/Info%20lit%202nd%20edition.pdf [cited 2009. 10. 11].

34) SCONUL, Information skills in higher education : a SCONUL position paper, 1999, Available at,

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 [cited 2009. 10. 11].

3.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지침 분석, 그리고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소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종합,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표 4>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구성요소

주요 요소	세부 요소	문항수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 • 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 여부(물건구매, 찾아가기 등) • 고급수준의 의사소통 여부(자녀학원, 권리구제 등) •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언어의 소통 여부 • 검색시 동의어, 관련어 사용 원활성 	5
정보요구 인식/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에 대한 자세와 인식(적극 추구, 자포자기 등) • 정보 필요성 인식 강도 • 정보요구의 표현 정도 	3
정보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정보원 인식 • 공공기관 정보원 인식 • 대중매체 정보원 인식 • 인터넷 정보원 인식 • 도서관 인식 	9
정보접근/정보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이용빈도 • 공공기관 이용빈도 • 대중매체 이용빈도 • 도서관 이용빈도 • 인터넷 정보원 이용빈도 • 검색기능 이용 	12
정보이용/분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췌, 메모, 정리, 스크랩 등 • 북마크 관리/메일 관리/파일과 폴더 관리 • 스프레드시트나 DB프로그램 이용한 정보 관리 	5
정보생산/소통/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사람(가족, 동료 등)과의 대화 • 신문/잡지 등 투고 • 온라인 게시판 등에 글쓰기 • 메일/메신저 이용하기 • 미니홈피/홈페이지/블로그 운영 • 각종 미디어 제작 • 문서제작/프리젠테이션 제작 	8
정보윤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 영상, 음원, 게시물 등의 합법적 이용 •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인식 • 네티켓 준수 •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6
정보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의 이용-기본/검색/메일 등 • 컴퓨터의 이용-기본/워드/프리젠테이션/스프레드시트/모국어 언어팩 등 • 정보기기의 이용-프린터/스캐너/디지털카메라 등 	10

그리고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관련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Chronbach의 알파계수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세부 항목별 신뢰도 검증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각의 영역을 표현하는 하위 측정항목이 하나의 동일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⁵⁾

<표 5>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의 신뢰도

	언어	정보요구	정보원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	정보통신기술
Chronbach's Alpha	0.890	0.456	0.832	0.882	0.861	0.878	0.855	0.946

IV.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20-30대가 가장 많고, 성별은 결혼이민자로 인해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출신국가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여 중국인이 절반을 넘고, 지역은 부산 202명, 경남 170명으로 부산지역은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경남지역은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혼인 여부에 있어서 전체의 78.6%가 기혼이며, 직업은 생산직이 절반가까이 되지만, 집단별로 이주노동자는 생산직이, 결혼이민자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체류기간은 전체적으로 2-3년 미만, 5년 이상, 1-2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는 5년 이상이 많은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3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5) 신뢰도 계수는 응답자의 일관성이나 측정항목의 유사성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지만,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항목(하위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요구 항목의 낮은 신뢰도 계수는 이 항목의 하위변수가 총 3개에 불과하여 응답자의 일관성 등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미만	20	4.9	15	8.1	5	2.3
	20대	133	32.8	61	32.8	72	32.7
	30대	179	44.1	78	41.9	101	45.9
	40대	67	16.5	27	14.5	40	18.2
	50대	6	1.5	5	2.7	1	0.5
	60대 이상	1	0.2	-	-	1	0.5
	계	406	100	186	100	220	100
성별	남	150	41.4	-	-	150	79.8
	여	212	58.6	174	100	38	20.2
	계	362	100	174	100	188	100
출신국가	중국	120	30.1	59	32.2	61	28.2
	한국계 중국	96	24.1	50	27.3	46	21.3
	베트남	88	22.0	53	29.0	35	16.2
	필리핀	46	11.5	21	11.5	25	11.6
	인도네시아	25	6.3	-	-	25	11.6
	태국	24	6.0	-	-	24	11.1
	계	399	100	183	100	216	100
거주지	부산시	202	54.3	103	60.6	99	49.0
	경상남도	170	45.7	67	39.4	103	51.0
	계	372	100	170	100	202	100
혼인여부	미혼	77	21.4	-	-	77	38.7
	기혼	282	78.6	160	100	122	61.3
	계	359	100	160	100	199	100
직업	생산직	170	45.7	6	3.5	164	81.6
	서비스업	24	6.5	19	11.1	5	2.5
	자영업	18	4.8	10	5.9	8	4.0
	농업	1	0.3	1	0.6	-	-
	전업주부	111	29.8	111	64.9	-	-
	전문직	8	2.2	5	2.9	3	1.5
	기타	40	10.8	19	11.1	21	10.4
계	372	100	171	100	201	100	
체류기간	1년 미만	57	14.5	33	18.3	24	11.3
	1-2년 미만	67	17.1	27	15.0	40	18.9
	2-3년 미만	85	21.7	31	17.2	54	25.5
	3-4년 미만	60	15.3	18	10.0	42	19.8
	4-5년 미만	42	10.7	13	7.3	29	13.7
	5년 이상	81	20.7	58	32.2	23	10.8
	계	392	100	180	100	212	100

2.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

정보리터러시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도서관 활용 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이수여부는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보고 조사대상자의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이수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교육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고,³⁶⁾ 집단별로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모국에서 이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³⁷⁾ 한국어교육기관은 두 집단 모두 공식교육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기간은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1주일-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노동자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한편, 정보활용교육의 이수는 한국어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이수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집단별로 결혼이민자는 비이수자의 비율이, 이주노동자는 모국에서 이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별로 결혼이민자는 전문교육기관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전문교육기관 외에도 자가학습의 비중도 높았다. 교육기간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결혼이민자는 6개월 이상의 비율이, 이주노동자는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어교육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고, 집단별로 결혼이민자가 이주노동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의 경우 이주민들이 이수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이주민들은 주로 컴퓨터이용기초 및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이 기초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였고,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 구축, 정보윤리, 보조기기 이용 등과 같이 높은 단계의 교육은 이수비율이 매우 낮았다. 집단별로 결혼이민자는 컴퓨터 이용 기초, 인터넷 교육, 특히 워드프로세서 등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수한 반면, 이주노동자는 도서관이용법, 정보보안과 정보윤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한국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가량인 47.2%였고 나머지는 중국 26.4%, 베트남 6.9%, 인도네시아 5.6%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이주민의 90% 이상이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한국어를 이미 구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7)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구사능력을 선발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이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모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게 된다.

〈표 7〉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이수현황

단위 : 명(%)

내용	구분	한국어교육			정보활용교육		
		전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전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교육 이수	모국 이수	179(40.2)	45(21.6)	134(56.5)	136(33.3)	46(24.3)	90(41.1)
	한국 이수	194(43.6)	125(60.1)	69(29.1)	111(27.2)	67(35.4)	44(20.1)
	미이수	72(16.2)	38(18.3)	34(14.3)	161(39.5)	76(40.2)	85(38.8)
	계	445(100)	208(100)	237(100)	408(100)	189(100)	219(100)
교육 기관	자가 학습	77(18.8)	28(15.1)	49(22.0)	63(22.7)	22(17.7)	41(26.8)
	공식교육기관	176(43.0)	80(43.0)	96(43.0)	117(42.2)	58(46.8)	59(38.6)
	민간단체	65(15.9)	32(17.2)	33(14.8)	24(8.7)	8(6.5)	16(10.5)
	사설기관	34(8.3)	9(4.8)	25(11.2)	28(10.1)	11(8.9)	17(11.1)
	도서관	2(0.5)	1(0.5)	1(0.4)	5(1.8)	2(1.6)	3(2.0)
	기타	55(13.4)	36(19.4)	19(8.5)	40(14.4)	23(18.5)	17(11.1)
계	409(100)	186(100)	223(100)	278(100)	124(100)	153(100)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29(8.8)	7(4.9)	22(11.8)	41(17.4)	12(11.8)	29(21.8)
	1주일-1개월	61(18.6)	6(4.2)	55(29.6)	59(25.1)	21(20.6)	38(28.6)
	1개월-2개월	45(13.7)	16(11.3)	29(15.6)	30(12.8)	10(9.8)	20(15.0)
	2개월-3개월	31(9.5)	10(7.0)	21(11.3)	23(9.8)	15(14.7)	8(6.0)
	3개월-6개월	35(10.7)	19(13.4)	16(8.6)	21(8.9)	12(11.7)	9(6.8)
	6개월 이상	127(38.7)	84(59.2)	43(23.1)	61(26.0)	32(31.4)	29(21.8)
계	328(100)	142(100)	186(100)	235(100)	102(100)	133(100)	
교육 만족도	매우 만족	97(29.2)	52(36.0)	45(23.9)	43(18.5)	23(22.8)	20(15.3)
	만족	86(25.9)	44(30.6)	42(22.3)	81(34.9)	40(39.6)	41(31.3)
	보통	113(34.1)	38(26.4)	75(39.9)	80(34.5)	30(29.7)	50(38.2)
	불만족	28(8.4)	7(4.9)	21(11.2)	25(10.8)	7(6.9)	18(13.7)
	매우 불만족	8(2.4)	3(2.1)	5(2.7)	3(1.3)	1(1.0)	2(1.5)
계	332(100)	144(100)	188(100)	232(100)	101(100)	131(100)	

〈표 8〉 정보활용교육의 내용

정보활용교육 내용	전 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서관 이용법	43	7.3	15	5.2	28	9.3
컴퓨터 이용 기초	127	21.5	61	21.1	66	21.9
워드 프로세서	60	10.2	39	13.5	21	7.0
스프레드시트	33	5.6	20	6.9	13	4.3
데이터베이스	18	3.1	6	2.1	12	4.0
인터넷 검색	86	14.6	45	15.6	41	13.6
인터넷 쇼핑/인터넷 뱅킹	44	7.5	28	9.7	16	5.3
홈페이지 구축	18	3.1	8	2.8	10	3.3
정보보안/바이러스 등	31	5.3	10	3.5	21	7.0
표절/저작권보호/정보윤리	18	3.1	4	1.4	14	4.7
각종 보조기기 사용법	39	6.6	21	7.3	18	6.0
다국어 언어팩 설치	33	5.6	15	5.2	18	6.0
기타	40	6.8	17	5.9	23	7.6
계	590	100	289	100	301	100

3.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별 실태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별 실태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는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최저 1점(부정적)에서 최고 5점(긍정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 정보리터러시의 세부항목별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 전체 평균값은 '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이 3.435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인데 비해, '고급수준의 의사소통'이나 '컴퓨터 및 검색시 용어 사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결혼이민자는 일상적 혹은 고급수준의 의사소통에 관한 능력은 중간수준인데 반해, 컴퓨터 및 검색 영역의 언어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상적인 언어소통'만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집단별 언어능력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731$ $p=0.084$).

〈표 9〉 언어능력의 응답현황

언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	179	3.2011	1.14842	219	3.0411	1.09341
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여부	182	3.5879	1.10272	217	3.3041	1.07997
고급수준의 의사소통여부	172	3.1047	1.32920	211	2.8104	1.20794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언어의 소통여부	176	2.8239	1.29071	215	2.5674	1.20119
검색시 동의어, 관련어 사용의 원활	175	2.6971	1.32818	214	2.4766	1.19345

나. 정보요구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주민들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완전한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심리적 위축,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정보부족과 정보추구행태는 결혼이민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요구의 표출은 이주노동자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정보요구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626$, $p=0.105$).

〈표 10〉 정보요구의 응답현황

정보요구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보필요성 인식	183	3.1148	1.12560	220	3.0227	0.98594
적극적인 정보추구행태	181	3.4751	0.98075	217	3.1152	0.99098
정보요구의 표현정도	182	2.9890	1.09741	219	2.9954	1.09418

다. 정보원 인식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은 ‘주변 모국인’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이 ‘주변 한국인’과 ‘대중매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경향이다. 특히 정보원의 인식에서 ‘전문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의 평균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이주노동자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주변 모국인’, ‘민간단체’, ‘인터넷’을 더욱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였다. 한국인남성과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들은 가족 및 친척, 이웃 등의 한국인과 접촉이 잦은데 반해,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작업장과 회사기숙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혹은 공식적인 지원조직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언어능력이 있어서도 결혼이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언어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 ‘모국인’과 ‘인터넷’을 더욱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신분은 행정기관보다 민간단체를 더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정보원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078$, $p = 0.938$).

〈표 11〉 정보원 인식의 응답현황

정보원 인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주변 모국인	179	3.3296	1.01548	223	3.4664	1.02995
주변 한국인	178	3.2528	1.02407	220	3.1045	1.04815
행정기관과 그 홈페이지	176	2.7784	1.16707	211	2.6161	1.09088
민간단체	178	2.8146	1.17142	216	2.9259	1.21006
책이나 신문, 잡지	179	2.8827	1.4788	215	2.7721	1.14352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176	3.2273	1.09260	211	3.0853	1.15977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179	2.8715	1.19936	214	2.9252	1.16039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177	2.6949	1.20493	216	2.6481	1.15589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	178	2.4213	1.09286	217	2.4839	1.15509

라. 정보접근/정보검색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모국출신의 주변사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이 '주변 한국인', '대중매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이나 '온라인 도서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가장 낮았다. 정보접근에 있어서 집단별 응답결과는 정보원에 대한 인식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주변 모국인'과 '민간단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고, 또 '인터넷'과 '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색기능은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이용 빈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정보이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t = -1.201, p = 0.231$).

〈표 12〉 정보접근/정보검색의 응답현황

정보접근/정보검색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주변 모국인	179	3.3575	1.10950	223	3.5247	1.01700
주변 한국인	177	3.2429	0.99016	218	3.1284	1.02144
행정기관과 그 홈페이지	167	2.7365	1.15750	213	2.5681	1.05120
민간단체	174	2.7011	1.15918	219	3.0046	1.14739
책이나 신문, 잡지	173	2.7688	1.14311	217	2.7465	1.11193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174	3.1724	0.99950	218	2.9771	1.14176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171	2.8655	1.25066	215	2.8977	1.22617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174	2.7816	1.24395	215	2.7116	1.16835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	174	2.3908	1.08437	216	2.4074	1.06999
검색시 여러개의 키워드 동시사용	170	2.5118	1.15763	219	2.5114	1.14684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검색	174	2.8103	1.28293	216	2.6620	1.16205
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자주 검색	172	2.1163	0.97835	216	2.2778	1.02828

마. 정보이용/분석/관리

전반적으로 정보이용/분석/관리에 있어서는 응답결과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이주민들은 정보이용/분석/관리 영역에 있어서 '메모'와 '정리'를 가장 많이 한 반면, '스프레드시트나 DB 프로그램 이용한 정보 관리'를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조금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항목의 집단별 응답결과는 이전의 항목과는 다소 다르게, 이주노동자들이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북마크 관리', '파일과 폴더관리', '스프레드시트나 DB프로그램'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분석/관리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553, p = 0.011$).

〈표 13〉 정보이용/분석/관리의 응답현황

정보이용/분석/관리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도서, 신문기사 등의 체계적 정리	178	2.9157	1.15894	222	2.8514	1.10141
정보 이용시 메모	178	2.9607	1.06491	218	2.9312	1.00223
파일과 폴더의 체계적 관리	177	2.6835	1.18293	221	2.7602	1.16831
북마크의 체계적 관리	173	2.3815	1.10711	220	2.6455	1.17109
스프레드시트, DB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정보 관리	177	2.2599	1.02814	219	2.5068	1.11442

바.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생산/소통/공유에 있어서 이주민들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주변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여, 이주민들이 정보의 생산과 공유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 및 잡지에 대한 투고’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제작’의 평균점수는 매우 낮았다. 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주노동자가 정보생산/소통/공유에 보다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주위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온라인게시판, 메신저, 미디어제작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결혼이민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활동에 보다 적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2.553, p = 0.011$).

〈표 14〉 정보생산/소통/공유의 응답현황

정보생산/소통/공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주위사람과의 대화	179	3.3128	0.97289	222	3.2162	1.05423
신문, 잡지 등에 투고	175	2.1086	0.90635	217	2.1659	1.02746
온라인 게시판 글쓰기	173	2.2601	1.06010	219	2.5434	1.15405
메일 이용하기	177	2.6215	1.22391	219	2.8037	1.17418
메신저 이용하기	175	2.8629	1.31024	221	3.0814	1.21456
미니홈피/블로그/홈페이지 운영	176	2.4148	1.16796	220	2.5045	1.18012
각종 미디어(UCC)의 제작	179	2.3408	1.10212	222	2.6351	1.20603
프리젠테이션 파일 및 문서 제작	177	2.1751	1.09641	221	2.3167	1.12781

사. 정보윤리/문화

이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나 ‘네티켓 준수’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인 반면, 영상이나 음원 등의 합법적 이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경향을 보인다. 집단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정보윤리의 모든 항목에서 이주노동자의 평균점수가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

민자는 '개인정보보호', '네티켓 준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인데 반해, 이주노동자는 보통수준에 해당하고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513, p = 0.000$).

〈표 15〉 정보윤리/문화의 응답현황

정보윤리/문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177	2.6893	1.27009	223	3.1121	1.24154
영상, 음원, 게시물 등의 합법적 이용	179	2.2849	1.14771	219	2.5982	1.28620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검사	180	2.5111	1.23492	217	2.9585	1.23346
네티켓 준수	179	2.8939	1.37592	215	3.1256	1.25230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인식	180	3.0667	1.41658	221	3.3891	1.24414

아. 정보통신기술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매체는 디지털카메라이고, 그 다음이 인터넷과 이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정보통신기술에는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이는데,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전문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기에 직업상 생산직과 전업주부에 비율이 높은 이주민들이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프린터' 기기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이주노동자가 결혼이민자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메신저와 디지털카메라의 사용만 보통수준이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028, p = 0.043$).

〈표 16〉 정보통신기술의 응답현황

정보통신기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검색의 사용	179	2.9050	1.26621	222	3.0721	1.22723
이메일의 사용	178	2.8764	1.31330	221	3.1538	1.23724
메신저의 사용	179	3.0000	1.35746	220	3.1318	1.22228
워드프로세서의 사용	179	2.6257	1.21766	218	2.7523	1.20793
스프레드시트의 사용	179	2.3240	1.13970	219	2.5388	1.13820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사용	178	2.1124	1.05700	217	2.3871	1.12933
모국어 언어팩 설치	179	2.7374	1.24670	220	2.9227	1.25273
프린터 사용	179	2.7095	1.27397	218	2.6835	1.17806
스캐너 사용	179	2.3855	1.19079	218	2.5872	1.12542
디지털카메라 사용	179	3.2291	1.26226	220	3.3318	1.128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이수에 있어서 이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반면 정보화교육은 상대적으로 이수비율이 낮았고, 특히 이주노동자는 교육의 이수기간도 매우 짧았다. 둘째, 언어능력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집단별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언어능력의 수준이 낮았다. 셋째,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이주민들은 정보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비해 정보추구행태와 요구의 표현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정보원과 정보접근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정보원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이주민들은 주로 대인정보원 중에 모국인 집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며, 결혼이민자는 대인정보원 및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모국인 집단과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이주민들은 언어능력, 정보원, 정보접근에 비해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에 있어서 활용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에게 더욱 두드러지는데, 결혼이민자는 언어능력, 정보원, 정보접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 정보통신기술의 영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활용능력이 다소 높았다.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정보리터러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수준의 비교분석

조사대상자의 연령, 거주지, 출신국가, 체류기간,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이수여부와 이수기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연령별로는 20대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15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이며, 20대 미만을 제외할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636, p=0.003$).

둘째, 거주지의 경우 경남(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부산시(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2.553, p=0.011$).

셋째, 출신국가에 따라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필리핀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국적의 전체 평균 점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994, p=0.019$). 한국계 중국인은 중국에서부터 한국어를 비교적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 항목은 사실상 한국어 능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체류기간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체류기간

별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4년 이상인 집단과 4년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 = -2.300, p = 0.022$).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집단의 정보리터러시 평균은 159.3496점으로, 4년 미만 집단의 평균 148.3792점에 비해 약 11점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직업별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은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 = 1.828, p = 0.123$).

여섯째, 한국어교육 이수집단을 모국 이수, 한국 이수, 양국 이수, 비이수로 세분화하여 집단간 정보리터러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F = 2.619, p = 0.051$), 유의수준 0.1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이수하지 않은 집단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F = -0.440, p = 0.660$), 비이수집단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비이수집단은 한국에서 이수한 집단과 양국에서 이수한 집단보다도 더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이수집단에서 중국현지에서부터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기간은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한국어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인 집단과 3개월 미만인 집단으로 나누어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985, p = 0.048$). 따라서 통계치를 근거로 볼 때, 한국어교육을 어디에서 이수하고, 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받았는지의 문제는 정보리터러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정보활용교육의 이수여부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5.146, p = 0.000$). 즉 정보활용교육을 받은 집단의 평균은 16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39점)에 비해 정보리터러시의 점수가 22점이나 높았다.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의 이수기간에 따라서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F = 6.034, p = 0.000$). 특히 3개월 이상 이수한 집단은 정보리터러시 점수가 3개월 미만인 집단에 비해 약 30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368, p = 0.000$).

일반적 특성의 각 분류기준에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점수를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159.1053점, 지역은 부산거주자가 158.1188점, 출신집단은 한국계 중국인이 165.1979점,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이 159.3827점, 한국어교육은 모국어이수가 159.5507점, 한국어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이 157.8740점, 정보활용교육은 이수집단이 161.4113점, 정보활용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이 180.5738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연령은 20대와 60대간에 41점, 거주지는 부산과 경남 사이에 12점, 출신집단은 한국계중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22점, 체류기간은 4년 미만과 4년 이상의 집단 간에 11점, 한국어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과 미만의 집단 간에 9점, 정보활용교육은 이수집단과 비이수 집단 간에 22점, 정보활용교육은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의 집단 간에 29점의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비교척도의 간격이 큰 '연령'을 제외하면 '정보활용교육기간'과 이 정보리터러시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은 '정보활용교육 이수', '정보활용교육 기간'과 한국어 능력에 관련된 '출신집단' 등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일반적 특성		N	M	SD	t(F)	p
연령	20대 미만	20	126.3500	46.75837	3.636	.003*
	20대	133	159.1053	43.24372		
	30대	179	157.1453	40.08476		
	40대	67	141.0896	49.17955		
	50대	6	141.0000	43.61651		
	60대 이상	1	118.0000	.		
거주지	부산시	202	158.1188	40.39292	2.553	.011*
	경상남도	170	146.2529	47.94783		
국적	중국	120	148.3333	42.68279	2.994	.019*
	한국계 중국	96	165.1979	46.70075		
	필리핀	46	159.1739	44.52430		
	인도네시아	25	142.8000	37.76131		
	태국	24	142.4167	47.51926		
체류기간	1년 미만	57	145.1579	48.25261	1.175	.321
	1-2년 미만	67	151.2687	42.09030		
	2-3년 미만	85	148.8941	44.89857		
	3-4년 미만	60	147.4833	36.46196		
	4-5년 미만	42	159.2857	38.97046		
	5년 이상	81	159.3827	48.75412		
	4년 미만	269	148.3792	43.03354	-2.300	.022*
4년 이상	123	159.3496	45.48680			
한국어 교육의 이수여부	이수	330	152.2545	43.52327	-.440	.660
	이수하지 않음	72	154.7500	43.98039		
	모국어이수	138	159.5507	44.03218	2.619	.051
	양국어이수	40	152.8750	37.10635		
	한국어이수	152	145.4671	43.78861		
	이수하지 않음	72	154.7500	43.98039		

일반적 특성		N	M	SD	t(F)	p
한국어 교육기간	1주일	29	143.6207	41.28941	1.099	.363
	1-1개월 미만	61	144.1475	33.01910		
	1-2개월 미만	45	146.3778	45.51138		
	2-3개월 미만	31	157.1935	44.16969		
	3-6개월 미만	35	152.6000	42.25775		
	6개월 이상	127	157.8740	48.94684	-1.985	.048*
	3개월 미만	166	147.0964	40.21762		
	3개월 이상	162	156.7346	47.50597		
정보활용교육 이수	이수	231	161.4113	42.48754	5.146	.000*
	이수하지 않음	165	139.2606	41.85630		
정보활용교육 기간	1주일	41	149.7073	35.82753	6.034	.000*
	1-1개월 미만	59	149.9492	42.25923		
	1-2개월 미만	30	148.6000	42.10381		
	2-3개월 미만	23	161.0870	34.09600		
	3-6개월 미만	21	180.5238	29.06995		
	6개월 이상	61	180.5738	44.39762	-5.368	.000*
	3개월 미만	153	151.2941	39.28152		
	3개월 이상	82	180.5610	40.85055		

V.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국내거주 이주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 국내 기준 주민과 이주민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보리터러시 각 항목별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최저 1점과 최고 5점 사이에서 중간(보통) 점수인 3점을 넘지 못하는 응답들이었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의 출신국가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출판량과 출판유통구조, 그리고 세계 하위권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정보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복지관, NGO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들이 주로 한국어 습득과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정보리터러시 관련 기관들은 지역 내 여타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기관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38) 조용완, 전계논문, pp.432-433.

이주민들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도서관과 각종 정보원 이용교육,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내 이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중복방지과 특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이수여부와 이수기간 모두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교육을 이수한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을 단기간만 이수한 이주민과 비교적 장기간 이수한 이주민간 정보리터러시 수준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에서는 첨단 정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이 신속히 적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모국 정보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인터넷, 도서관, 정보원 이용 등에 관련된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주민 중 상당수가 취약한 출판환경과 정보통신인프라를 경험한 상태에서 국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교육은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겪게 될 정보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효과적인 정보활용교육을 위해서는 이주민 언어와 한국어로 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교육 교재의 개발, 이중 언어와 웹기반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튜토리얼의 제작과 보급, 이중 언어 기반의 도서관 이용안내와 교육 교재의 개발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있어 언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계 중국인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여타 국가 출신들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 출신들은 낮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3개월 미만으로 이수한 사람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공도서관과 복지관, NGO 등에서 이주민 대상 한국어 습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지역 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을 한데 모아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고, 각 언어권별로 제작되어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주체도 이주민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퇴임 교사나 공무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당국에서는 이중 언어(한국어와 이주민 언어)로 각기 제작된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중 언어 체계의 튜토리얼 기반 언어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대도시나 안산, 김해 등의 지역에서는 출신국가별 단위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거주지별로 살펴봤을 때, 대도시지역(부산)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경남)에 거주

하는 이주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에 이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제공 기관이나 정보 관련 시설,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수적인 측면에서 많고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당국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 이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 관련 인프라의 구비,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농사일과 가사 등으로 근무지 부근이나 가정 부근을 벗어나기 힘든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이나 농촌마을,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과 같은 이주민 밀집지역, 이주민 대상 진료기관이나 상담센터, 이주민 커뮤니티 행사, 법무부의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³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공공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에 다문화자료, 다국어 지원 컴퓨터(노트북) 무선인터넷(HSDPA 등)을 장착하여 다문화자료의 제공, 인터넷과 컴퓨터 이용 교육 제공, 모국과의 인터넷 연결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NGO, 자체 모임 등을 방문해 정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간의 정보리터러시에 있어서의 차이,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정보리터러시 영역에서의 차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거의 남성인 이주노동자 집단이 전부 여성인 결혼이주민에 비해 정보이용/분석/관리 영역, 정보생산/소통/공유 영역, 정보통신기술 영역 중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디지털격차 중에서 성별 간 격차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관련 당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향후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과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등 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제반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에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사회, 지역사회, 이주민사회 전반에 이해가 높은 이주민들을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 이주민사회 내에도 주류사회와 이주민사회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나 여론지도자(opinion leader)들이 존재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고 대체적으로 교육수준, 평균수입, 이중/다중언어 구사능력 면에서 우수하며 지역사회 내의 활동이 왕성하며 활발한 정보의 입수와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⁰⁾ 이

39) 법무부의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만 있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거주 이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새로이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김해, 진주, 공주, 포천 등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19개의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가로 신설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0) Elfreda A. Chatman, "Opinion Leadership, Poverty and Information Sharing," *RQ*, Vol.23, No.3(1987), pp.341-353.; Cheryl Metoyer-Duran, *Gatekeepers in Ethnolinguistic Communities* (Norwood, NJ: Ablex Pub, 1993), pp.1-228.

들은 이러한 능력과 함께 이주민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이주민이라는 정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게이트키퍼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⁴¹⁾⁴²⁾ 현재 국내 이주민 대상 언어와 정보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 전반과 교육교재와 강사 등에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인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구조를 재편하여 이주민 게이트키퍼들을 각종 위원이나 강사로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 이주민의 효과적인 정착과 적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 4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주민 게이트키퍼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시집은 몽골인 결혼이주여성은 의정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역봉사를 하고, 이 지역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면서 신규 정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이주민을 돕기 위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응시하기도 하였다(“몽골서 시집와 ‘사회복지사’ 꿈꾸다,” 연합뉴스 2008. 7.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01243>>). 필리핀에서 생물교사를 하던 결혼이주여성은 한글교육 자원봉사와 경찰 통역업무를 지원하면서 이주민들을 도와오다가, 현재는 경찰으로서 외국인 특별치안센터에서 범죄 예방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이주노동자 돕는 귀화 경찰관,” YTN, 2008. 12. 18. <http://www.ytn.co.kr/_ln/0103_200812180532328458>).
- 42) 정부에서도 이주민 게이트키퍼들의 역할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한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새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들을 지원해온 게이트키퍼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등의 이주민 단체들은 2008년 7월 정부(법무부)로부터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새로 입국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출입국 관련 제도 안내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민간단체 4곳 위촉장수여”, 법률신문, 2008. 7. 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11655>>.